

# 영광에 국내 첫 ‘수전해 성능평가센터’ 문 열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반영 수전해 성능·안전성·수명 검증  
100kW·1MW급 설비 구축...준공식 이어 성과 공유 심포지엄

영광에 국내 최초의 수전해 시스템 신뢰성 검증 시설이 문을 열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반영한 수전해 설비의 성능과 안전성, 수명을 검증할 수 있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청정수소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최근 영광 수전해 성능평가센터와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남지역본부에서 ‘영광 수전해 성능평가센터 준공식 및 성과 공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

장, 이승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김진균 고등기술연구원장, 정창현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남분원장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테이프 커팅에 이어 센터의 100kW·1MW급 주요 수전해 설비를 둘러보며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영광 수전해 성능평가센터는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구축된 국내 최초 수전해 시스템 신뢰성 검증 평가 시설이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그린수소 생산 시스템 신뢰성 제고 및 운영 기술개



전남테크노파크는 최근 영광 수전해 성능평가센터와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남지역본부에서 ‘영광 수전해 성능평가센터 준공식 및 성과 공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발’ 정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조성됐다.

센터에는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출력 변동성을 정밀하게 재현할 수 있는 ‘재생전력공급 모사장치’가

구축됐다.

또 100kW와 1MW급 알칼라인 및 고분자 전해질막(PEM) 수전해 스택·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 실증 장비도 갖췄다.

이에 따라 국내 수전해 기업들은 실제

재생에너지 발전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부하 변동과 기동·정지 상황을 가정해 수전해 장비의 안전성과 성능, 수명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고등기술연

구원과 한국에너지공대, 한국전기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전남테크노파크 등의 수소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센터 구축·운영 성과와 수전해 기술의 발전 방향, 산업별 청정수소 조달 방안 등을 공유했다.

수전해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영광 수전해 성능평가센터는 국내 수전해 기술의 산·학·연 생태계를 구축하고 청정수소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실증 거점”이라며 “수전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미래 에너지를 선도하는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광주본부와 동곡농협은 광주 광산구 관내 돌봄 대상 어르신들 찾아 노후 싱크대를 교체하는 등 취약농업인 지원 활동을 펼쳤다.

## 농협광주본부·동곡농협, 취약농업인 주거환경 개선

농업인행복콜센터 통해 애로사항 접수

농협광주본부와 동곡농협은 광주 광산구 관내 돌봄 대상 어르신들 찾아 노후 싱크대를 교체하는 등 취약농업인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생활에 불편을 겪던 돌봄 대상 어르신들이 ‘농업인행복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서 마련됐다. 농협의 ‘NH농

촌현장봉사단’은 현장 실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농협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이들은 동곡농협조합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 어르신들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인행복콜센터(1522-5000)는 70세 이상 고령·취약·홀몸농업인을 대상으로 말벗 등 정서적 지원과 생활불편 해소, 긴급출동 연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농업인은 인근 농·축협을 통해 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게임아트 제작 실무 교육을 통해 지역 게임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에 나선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026년 게임 인재양성 사업’의 하나로 ‘AI 활용 게임 아트 및 게임 리소스 개발 과정’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생은 오는 31일까지 25명 안팎을 선착순 모집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전액 지원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게임아트 산업 이해·제작 프로세스 △게임 UI·UX 기본 구조 △생성형 AI를 활용한 게임아트 제작 △게임 리소스 통합 및 규격화 △게임 장르별 아트 스타일 분석 △캐릭터·배경 스케치와 디지털 채색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생성형 AI를 게임아트 제작 과정에 접목해 게임 디자인 역량과 AI 활용 능력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 수료생에게는 프로젝트 결과물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제작을 지원하고, 게임 관련 기업 취업 연계 등 후속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

## 광주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작자 역량 강화

웹툰·웹소설·3D·AI영상 등 4개 분야 교육생 모집

(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지역 예비 콘텐츠 창·제작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광주콘텐츠코리아랩 장르특화 콘텐츠 스킬업 교육’ 교육생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은 다음달 2일부터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시작해 10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콘텐츠진흥원, GICON이 함께 운영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장르별 특성에 맞춘 실무 중심의 심화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은 광주영상복합문화관과 광주실감콘텐츠큐브에서 웹소설·웹툰·3D영상·AI영상 등 4개 분야, 총 24회에 걸쳐 진행된다.

웹소설 과정은 다음달 2일부터 매주 수요일 4회, 총 16시간 동안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운영하며 20명을 모집한다. 웹툰 과정은 다음달 3일부터 매주 목요일 4회, 총 16시간 동안 광주실감콘텐츠큐브에서 진행하며 정원은 20명이다.

3D영상 과정은 다음달 5일부터 매주 토요일 8회, 총 32시간 동안 진행되며 15명

을 모집한다. AI영상 과정은 다음달 8일부터 매주 화요일 기초·심화 과정으로 나눠 8회, 총 32시간 운영하며 단계별 15명씩 선반한다.

교육 대상은 광주지역 예비 콘텐츠 창·제작자이며 관련 분야 전공자는 우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8일까지 GICON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우수 교육생을 대상으로 후속 지원도 이어진다. 웹툰·웹소설 과정에서는 우수 교육생에게 1대1 멘토링을 제공해 교육 결과물을 실제 콘텐츠 플랫폼에 투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D영상 과정 우수 교육생에게는 관련 기업 인턴십 연계 기회를 제공해 편집·제작·운영 보조 등 현장 실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GICON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장르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멘토링과 인턴십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지역 예비 창작자들이 실제 창작 활동과 취·창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퀴즈 풀면 2만원 쿠폰”...남도장터몰 기획전

전남농관원, 내달 15일까지 퀴즈 이벤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재)남도장터와 함께 다음달 15일까지 ‘지리적표시 및 원산지인증제 퀴즈 이벤트’와 온라인 남도장터몰 특별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벤트 행사는 소비자가 직접 퀴즈에 참여하면서 지리적표시제와 원산지인증제도

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퀴즈는 네이버 모바일 검색창 하단 광고 배너를 클릭하거나 광주 주요 시내버스인 문흥18·봉선27·금호36 등의 내·외부 홍보물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퀴즈 정답자 가운데 1160명에게는 남도장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2만원 쿠폰이 지

급된다. 쿠폰은 남도장터 내 마련된 ‘지리적표시·원산지인증 특별기획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별기획관에는 이번 사업에 참여한 13개 업체가 입점해 고구마와 고춧가루, 무화과, 한우 등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특산품을 선보인다.

전남 농관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국가 인증 제도를 쉽게 이해하는 동시에 지역 생산자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